

현대 중국 여성소설의 담론 세계

-인터넷 소설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이상옥*

차례

1. 서론
2. 천월(穿越)소설의 사상 근원
3. 권력-남성 지배의 문학적 무기
4. 성애-현대 여성식 애정의 표출
5. 자아-여성 존재의 새로운 해석
6. 결론

국문초록

현대 중국의 인터넷 소설의 한 유행하는 양식인 천월소설을 중심으로 표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 분석해 보았다. 천월소설 구성의 사상적 근원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소설 작법과 허위적이고 작위적인 표현 기법으로 인하여 역사를 역사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의 자아 회복과 권력 획득, 그리고 애정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강구한다. 권력, 애정과 자어로 천월소설 주제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다.

사상적 근원 문제에서 권력은 사회와 여성의 관계와 지위 고정 문제로 환원된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대를 시간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현대 여성의 미망과 불안, 불확실성과 심리 결핍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보브와르의 '제2의 성' 등에 보이는 서양 사조는 기실 중국의 풍토에 아직 접합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여성의 존재 의식에 대한 관념이

* 전주대 인문대학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보브와르르 남성에 독립적이거나 천월소설의 여성은 남성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은 여성의 존재를 진지하게 문학적 형상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력은 어떻게 천월소설에서 구현되었는가. 애정 혹은 자아의식과 결합하여 권력의 획득에 여성이 참여하게 된다. 성애에 대한 구체적인 천월소설 속에서의 논의는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욕망과 전통적인 온난한 여성다움의 애정으로 남성을 감싸는 행위, 결혼과 이혼의 애정에 대한 실제 문제에 대한 성찰 등을 담고 있다. 자아 및 자아의식은 여성의 '성별의식' 등의 관념 등 천월소설의 가장 심대한 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귀납한다. 첫째, 천월소설은 현 시대 여성의 문학적 행위에 가장 적합한 양식이 되었다. 둘째, 천월소설의 문학적 이념은 욕구와 여성주의 이념, 그리고 서구식의 여성 가치관 등 및 전통에 대한 인식과 비판 등을 담고 있다. 셋째, 천월소설의 본질은 비문학적인 문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막대한 양적 성장과 유행을 통해 중국 사회의 여성의 심리와 지위, 기본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한다.

핵심어 : 인터넷소설 천월소설 권력 성애 자아

1. 서론

본 논문은 현대 중국의 여성소설의 인터넷 양식으로서의 표현 담론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그 목적이다. 인터넷 소설(망락, 網絡소설)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이에 따른 문화적 수요의 한 분출구로 1990년대 이후 현대에 가장 유행하는 소설 장르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중 '천월(穿越)소설'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독특한 여성 소설의 신 장르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양식이 되었다.¹⁾

1) '천월소설' 흥성의 중국적 현상은 거시적인 시각(macro level)과 미시적인 시각

여성소설은 현대 들어 다른 여타의 장르와 달리 활발하고 진지한 여성 특유의 표현 담론을 형성하여 왔으며 이는 여성소설이 그 존재 기반으로 하는 ‘언정(言情)소설’의 전통을 계승 혹은 단절하는 논쟁거리의 독자적인 소설의 담론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천월소설’은 ‘언정소설’의 순애보적인 표현 사상과 달리 상상과 역사, 그리고 허구가 서로 초월하는 상황에서의 여성의 문학적 성취를 위한 담론을 펼친다.²⁾

‘천월소설’의 성립과 발전은 소설과 문학 외적인 요소를 많이 지닌다.

(micro level)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인 입장은 중국 인구와 여성인구의 과다라는 사회-경제적 현상과 여성의 전통 속에서의 억압과 해방이라는 역사적 차원에서 그 해석이 가능하다. 절대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가 1억 명을 이미 2000년대 후반에 돌파하고 여성 또한 도시인구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물론 남성의 인터넷 소설도 여성 못지않게 활발하다. 중국에서의 여성이 역사 속에서 독립 개체로 인정되지 못한 과거는 망각과 기억 속에서 정리되어야만 하는 거북한 존재였던 것이다. 미시적인 시각으로는 여성문학의 전통을 들 수 있다. 현대 이후 급격한 여성 지위의 신장과 교육의 보급 등으로 여성소설과 문학이 특히 왕성한 발전을 보여 왔다. 다양한 형식 양상과 사상을 지닌 소설이 한 전통을 이루었는데 그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언정소설’이다. 여성만의 문학 형식으로 현대소설의 전통을 이룬 여성소설이 인터넷 도구를 통해 자연스레 ‘천월소설’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인의 민족성에서도 ‘천월소설’ 흥기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모든 자신과 사회문제를 역사로 해석하고 여기에 대입하려는 ‘역사성’적인 민족성의 경향과 ‘정통성’, ‘역사의 만들기와 재해석(혹은 직설적으로는 조작과 왜곡의 형식)’가 일반화된 역사 인식의 패턴이었던 과거 왕조에서의 ‘전통’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 2) ‘언정소설’과 ‘천월소설’의 관계를 통한 각 장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정소설’은 낭만소설, 순정소설 및 애정소설 등의 주제와 소재를 가진 소설의 통칭으로 중국과 대만 등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섬세한 감성과 사랑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의 문학적 승화라 할 수 있다면 ‘천월소설’은 이러한 ‘언정소설’의 범주 하에서 컴퓨터 인터넷망의 발전에 따른 최근, 특히 2000년대 이후 ‘언정소설’의 인터넷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천월소설’은 ‘언정소설’이 가지는 문학 본연의 특성인 사실과 현실주의가 퇴색하고 인터넷의 상상 공간과 결합하여 이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적절히 살린 가상의 주제와 플롯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역사 속으로 진입하여 역사의 시공(時空) 속에서 가상의 주인공과 구성을 통해 여성의 각종 심리와 자아인식 및 실현 등의 각종 여성 관련 사회와 개인적 실천을 한다.

이들테면 ‘미녀작가’의 이미지, 대학생 들이 50%를 상회하는 작가군, 작가 선발 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녀 작가의 얼굴이 담긴 우표 제작 등의 상업적 요소를 전제로 하는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광고 등이 일순간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양상의 ‘사이비문학’의 형식이 범람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래로 인터넷 문학은 천월소설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민(全民)문학’으로 지위를 가지게 된 천월소설은 가히 혁명적인 내용과 문체로 문학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했다. ‘쓰레기문학’, ‘패스트푸드문학’, ‘가라오케문학’ 혹은 ‘화장실 휴지문학’ 등의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 ‘천월소설’은 그러나 현재 여성의 심리와 상황이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등 여성 존재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기도 하다.³⁾

가장 중요한 인터넷문학 흥성의 요인은 문학의 ‘엘리트화 배제’에 있다. 인터넷은 가장 자유롭게 그리고 가장 쉽게 매개를 획득할 수 있는 도구이다. 발표에 대한 제한과 심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창작과 발표는 더 이상 독점적인 활동이 아니며 보통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대중화 활동이다. 인터넷문학의 작자는 대량의 ‘인터넷 글쟁이(사수, 寫手)’ 혹은 ‘인터넷 유민(流民)’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업(專業) 작가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전업 작가보다 더욱 활동이 왕성하기도 하다. 모든 인터넷문학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참가하는 문학광란축제이다. 철저한 엘리트화를 배격하는 문학이다.⁴⁾ 인터넷문학 행위는 마치 ‘떡을 그려 넣고

3) 상업성과 결합하여 천월문학은 견잡을 수 없을 정도의 ‘자유도’를 누리고 있다. 천월문학은 2008년 1월 중국 최대의 포털 사이트인 신랑(新浪)망(網)과 도혹(淘酷)망이 연합하여 주최한 ‘07년도 청춘문학 4대 화단(花旦) 평가 행사에서 25만 명이 참가한 네티즌의 투표에 의해 이흠(李歆), 동화(桐華), 고만(顧漫)과 미락(薇絡)의 『독보천하』(獨步天下), 『보보경심』(步步驚心), 『하이생소』(何以笙簫)와 『계단왕비』(契丹王妃)를 순위로 평가하여 인터넷 문학에서의 지위를 굳혔다. 『하이생소』를 제외한 3편이 모두 천월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司艷輝 田娜, 『從網絡穿越小說中看現代女性的迷惘』, 文教資料, 2010년 2월 號 下旬刊, 14).

요기하는 식'으로 비유될 수 있다. 목적이 자신의 심신(身心)의 만족과 상상(想像)의 나래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기술의 예술화를 획책한다.⁵⁾

현재의 인터넷소설의 새로운 장르이자 인기가 폭발적인 천월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의 사상적 배경, 배경의 표상을 권력, 애정과 자아의 세 상징⁶⁾으로 상징하고 이를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와 약간의 분석의 의미를 해석학적 의미로 논의를 진행한다.

2. 천월(穿越)소설의 사상 근원

천월소설은 여성이 창작자가 되거나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 여성 특유 혹은 고유의 문학적 창작의 결과를 말한다. 중국 문단의 공식적인 정의를 장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천월소설의 호칭은 유별(類別)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 정의한다. 스토리가 통상적으로 현대 청년이 겪은 변고(變故)와 기연(機緣)이 우연히 발생하여 고대

4) 陶東風, 『新時期文學三十年：作家“倒下去”“寫手”站起來』, blog. sina. com. cnPt aodongfeng.

5) 王浩, 『論當下網絡文學的性別傾向』, 廣西師範學院學報, 2009年10月第30卷第4期, 28쪽.

6) '천월소설'의 내용과 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상적 혹은 조작적 정의(定義)의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즉, 기존의 작품 중 사회적 영향력과 문학적 가치를 지닌 '천월소설'의 내용과 작품의 사상 경향 및 구성 플롯의 패턴을 세 가지 표상으로 귀납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천월소설'의 창작 모티브가 여성의 남성성에 대한 기존 권력의 탈취, 애정의 현대적 해석과 재생산의 패턴 및 자아의 새로운 사유와 실천이라는 범주로 대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들이 기존의 여성소설에서보다 더 자유스러운 상상력을 바탕으로 가상의 세계 구축과 역사성의 소설 무대의 시공적 확장, 서양 사조의 영향 및 이의 현대 중국 생활과 문학 속에서의 재해석 등이 과거의 여성소설과는 판이한 작품의 세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천월소설'을 여성소설의 새로운 첨단화된 형식과 사상을 담은 장르로 특정 지워진다.

로 진입한다. 현장감있게 각종 역사 사건을 알게 되거나 참여하고 이에 증인이 되는 형식을 취한다.⁷⁾ 1997년에 발표된 황이(黃易)의 『심진기』(尋秦記)⁸⁾를 필두로 하여 현재 중국 여성 문단의 가장 대표적인 소설 유형을 구성하고 있다. 역사와 허구성, 그리고 현대인의 이 양자에 대한 참여의 욕망의 요소가 천월소설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형성한다. 현대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통한 존재 의미의 추구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여 자유롭게 실현되는 패턴이 천월소설의 필연성을 낳았다. 소설 속의 여주인공은 신분 지위를 통하여 물질적 향수를 획득하려고 시도한다. 혹은 애정의 추구하고 이의 상실을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순진한 감정과 일체인 자신의 신분을 잃는다. 이것은 역사의 필연이기도 하고 우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에게는 더욱 문학과 소설의 공간이 창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절실하다. 이것이 현대 천월소설 유행 풍조의 문학 사상적 배경을 이룬다.

천월소설은 그 의미가 시대를 관통하여 초월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관통하고 초월하는 객체는 역사이다. 주체는 여성이 된다. 전통 소설 존재의 이론을 빌어 엄밀하게 진술한다면 천월소설은 소설이 아니다. 문학적 존재의 기본 구성 요소인 허구(fiction) 속의 진지한 인간을 묘사한 사실(reality)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문학에 고유한 보편적 진리로서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문학적 감동과 소양을 결핍하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나도 허황하고 미혹적인 상황과 스토리 전개, 환경 설정 등이 기존의 문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즉, 문학적 사실과 진실이 통일시 되지 않는 경우가 천월소설이다. 천월소설의 존재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7) 舒晉瑜, 『作家社100萬簽下四大“穿越奇書”』, 中華讀書報, 2007年7月25日.

8) 남성 소설이지만 여성이 주요 주인공으로 등장함.

“천월소설이 초월하고 관통하려는 주체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귀납하면 다음 두 가지이다. 영혼만의 초월과 신체와 영혼의 동반 초월이 그것이다. 그러나 천월소설에는 초월의 주체가 중요하지 않다. 주체가 어떤 형식으로 초월하든 간에 모두 현대인의 영혼, 현대인의 사상을 구비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신체에 현대인 사고와 미망(迷妄, 미혹과 혼돈), 이상과 기대, 신분의 초월과 역사의 천월(초월) 등이 모두 주인공인 현대인의 미실(迷失)을 체현하고 있다.”⁹⁾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초월 주체의 규명 여부와는 달리 초월의 내용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초월의 필연성은 문학적인가? 이는 환원하면 문학의 정당성과 보편성에 대한 의문과 다름 아니다. 역사를 빌어 실제로는 역사의 외피(外皮)로 현대를 은유하는 것이 아닌가? 문학적 창조의 상상력인가 환각적 상황의 펼침인가?

천월소설이 존재하는 가장 큰 근거는 역사이다. 역사는 여성에게는 필연적으로 대면해야 할 거대 담론의 체계이다. 역사는 여성에게는 기억과 망각의 이중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여성은 역사가 자신에게 진 빛을 झा야 할 의무와 경건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대 여성 문학가의 창작 사상의 원천이다. 과거 봉건시대부터 여성은 그 얼마나 역사의 담론 체계 하에서 억압되어왔던가? 혹은 여성 존재 자신이 부정되었으며 최소한 자신 존재에 일체감을 부인당할 정도의 심각한 제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개혁, 개방의 여성 개성 자유 시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여성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해방시키는 일이다. ‘역사로부터의 자유’를 획책한다.

그러나 역사는 여성 문학가가 관념화하는 정도의 허구의 세계만은 아니다. 남성 위주의 담론과 모든 문학 행위를 일시에 혁명화 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분파가 발생한다. 여성의 문학적 관념을

9) 曹沁, 『從網絡穿越小说看其中的現代蘊味』, 文教資料, 2008年6月號上旬刊, 23~24쪽.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이를테면 역사에 대한 직접 대결(참여)과, 역사를 자신의 존재와 우연적 요소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병립과, 그리고 역사를 여성 고유의 특화된 테마로 표상화(representation)하는 자아과의 세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역사를 문학 공간의 주요한 소재와 무대로 환원시키는 맥락(context)으로 간주한다면 반드시 현대의 역사를 문학의 실제 공간으로 현실화하지 않아도 된다. 무궁한 역사 공간이 여성들에 의해 자신의 삶과 생활과 유리(遊離)된 길고 긴 역사의 여정 속으로의 여행을 시도하거나 부단히 모색한다. 이것이 현환(玄幻)소설 혹은 가공(架空)역사소설의 표현 양식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업적 인터넷의 속성으로 활용되어 엄청난 양과 이에 따른 가치의 하락을 불러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현재 거의 모든 중요한 인터넷 콘텐츠를 점령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인터넷 문학망인 ‘홍수침향(紅袖添香)’ 같은 경우 첫 페이지에 가장 인기있는 추천작들을 모두 천월소설이 휩쓸고 있다.¹⁰⁾

천월소설의 사상적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사상적 근원을 귀납해 보자.¹¹⁾

2.1. 권력-억압 타파의 문학적 방법

푸코(Michael Foucault)의 인터넷과 권력 간의 관계 이론이 중국에서 인터넷 소설의 현상을 소개하는 주요 사상적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푸코의 권력이론은 후현대주의의 시각주의,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권력을 분석한다. 과거와 같은 정치성을 띤 물리력이 그 본질이 아니라 관계

10) 曹沁, 앞의 글, 23쪽.

11) 본 ‘천월소설’ 사상근원을 통틀어 하나의 정체(整體)로 세 가지 표상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상근원은 각각의 표상에 대한 그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두었다.

와 네트워크, 장(場)을 표상한다. 그러므로 권력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필연적으로 분산성, 다원성, 그리고 현대성을 상징하는 거대 담론의 정치 관념을 대변한다. 권력은 제도가 아니라 구조이며 책략성 문제로 귀결되는 속성을 띤다.¹²⁾ 억압성을 상징하는 물리력과 같다. 정치 구조와 체계의 환경 하에서 특수한 강제력의 화신이 보편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예시한다. 즉, 그것은 인간 삶과 그것의 반영인 문학 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 문학의 규칙이다.

여성문학 창작의 원천 중의 하나는 권력 관계의 문학화이다. 담론은 단지 언어를 수단화하지 않는다. 현대 여성이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로 표명된다. 문학적 허위의식으로 진리를 가장한다. 자신이 믿는 진실을 문학의 위장으로 남에게 사회에게 강제하고 기존의 신념에 반역을 들게 한다. 권력 집단만이 아닌 누구도 권력자가 될 수 있다. 더구나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민감하고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침범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대로 환경과 인물 설정을 위장한다. 이로써 푸코가 설파한 남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 기술 대신 여성 작가들의 담론의 주도권 획득에 의한 남성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다.

여성의 사회화와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신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의 모색과 확정은 여성주의사상과 여성주의 문학의 중요한 목표이다. 남성만의 권력 독점이 더 이상 아니다. 그러나 여성이 갑자기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는 쉽지 않다. 남성 뿐 아니라 여성 자체도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방법론에서도 남성을 타도해야 하나 아니면 여성 고유의 특성을 발휘할 유기적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조합인가? 거시적 차원에서 문학적 방법과 사상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 바로 권력의 여성화를 위한 선결 작업일

12) 王士紅, 「用福柯的權力理論解讀海勒的《第二十二條軍規》」, 重慶工業學院學報(社會科學), 第21卷第12期, 2007年12月, 117~119쪽.

것이다.

2.2. 애정-남성 지배와 피지배 사이에서

애정은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적어도 전통 여류 문학의 상황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현재 천월문학 속의 애정은 변신한다. 공리주의적 상업화 애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애정을 주제와 소재로 한 인터넷 소설의 권위자는 안니보패(安妮寶貝)이다. 안니는 1998년 본격적으로 인터넷 애정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하여 다수의 창작품을 가지고 있다. 수려하고 독특한 필치는 처량한 심미 의식을 전염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울하고 청량한 격조는 냉정과 처연함을 독자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데 애정의 방관자로서 묘사되는 애정사는 거의 모두 과정일 뿐 결과가 없다. ‘애정은 단지 숙명이 배치해 놓은 형국이야.’ ‘당신을 사랑해, 이것이 나의 재난이 되었어.’ 숙명과 무상, 애정과 사망, 고별과 유랑이 안니 소설의 의상(意象, 의미 상징체계) 부호가 되었다.¹³⁾

성(性) 이슈도 다른 여성주의 문학의 경향과 같이 서양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프랑스의 여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이 끼친 영향이 천월소설의 애정 명제와 사고에 깊은 사상적 근원이 되었다.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국어본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의 인기를 얻고 있는 『제2의 성』은 중국 여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역사를 세계사적 안목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타자(他者)’의 지위에 머물게 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중국 현대 여성은 『제2의 성』을 통해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 부속적인 장기간에 걸친 부권제의 역사와 부권제 하에서 출

13) 鄭薇, 『盛開在網絡的文學之花-概述網絡女性寫作者的小說創作』, 黑龍江社會科學, 2007年第2期, 78쪽.

현한 신화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한다. 여인을 역사에 부재한 존재로 규정하고 독립된 등급과 성별 독립 의식, 육체, 생명, 내재성과 타자의 개념 모두를 남성이 발명한 이론으로 치부한다.¹⁴⁾ 또한 중국 여성문학의 선구자인 근대의 장애령(張愛玲)의 여성주의 관점인 ‘여인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혼인은 일종의 교역이다.’라는 관점 등 여성과 혼인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보브와르와 상통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¹⁵⁾

그러나 보브와르를 통한 여성 존재와 본질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나 관련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보브와르의 혁명적 여성의 삶은 『제2의 성』을 통해 중국 현대 여성의 삶에 혹은 최소한 문학적 상상력의 근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애정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 부호이다. 애정을 통한 여성주의의 실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남성에 대한 지배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이 능력 혹은 미모, 기타 수단을 강구하여 발휘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남성에게 피 지배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다. 애정으로 남성을 자신의 사유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길이 애정에 관계된 여성주의 문학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2.3. 자아-현실의 초월

여성소설의 자아는 ‘여성 빈도(頻道, 여성만의 독자적인 문학적 채널과 방법)’를 표방한다. 즉, 현대 중국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1980년대 출생자(80후)와 1990년대 출생자(90후), 그리고 화이트칼라 계층 전문직

14) 李孝英, 「父權制歷史, 神話與波伏娃的女性“他者”地位」, 高等函授學報, 2010年2月, 24~25쪽.

15) 張書麗, 「跨越時空的契合-張愛玲和波伏娃的女性意識比較」, 東北大學學報, 第12卷第3期, 2010年5月. 278~282쪽.

여성군이 주요 창작 작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대학 재학생이거나 20대와 30대여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독특한 인구학적 ‘1자녀정책’이 빚은 결과로 인구정책이 실시된 1978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후 출생한 인구에 대해 10년을 주기로 자기중심의 독자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이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그들 여성은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행동 유형을 보임으로써 남성과 구별되는 성별 의식을 자각하고 이를 문학적 주요 주제와 소재로 다루는 사상의 근원으로써 창작의 동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아 모색의 천월소설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천월소설 창작의 주체가 ‘천월’하는 방식이 바로 여성의 현실세계에 대한 부정과 혁명, 그리고 초월의 심리를 노출하는 것이다. 자아의식은 분열된 자아를 분신으로 예시한다. 천월소설의 주체는 ‘천월’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영혼만의 초월(천월), 둘째는 신체와 영혼의 동반 초월, 그리고 셋째의 신체와 영혼의 대환(對換, 대체)의 세 유형이다. ‘천월’의 계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교통사고, 투신, 화장실에서 번기에 빠짐, 잠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 첨단과학의 이용, 외계인 조우와 타살 등의 방법이 등장한다. 이들이 시공을 ‘천월’하는 곳은 삼국(三國), 당조(唐朝), 한조(漢朝), 명조(明朝), 및 청조(淸朝) 등의 시간으로 현대에서 삼시간에 이동한다. 혹은 가공(架空)의 역사 시대가 무대로 등장하는데 고 이집트, 서유럽 등지로 확산된다. 시공의 제약이 사실의 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제약없는 상상’ 혹은 ‘몽상’의 영역에 가까운지 모른다. 청조의 강희(康熙)와 옹정(雍正) 년대가 소설의 무대로 가장 주목받는데 그 이유는 현대에 가까운 과거의 역사 무대로 현대와 완전히 별개의 가치 체계와 삶의 방식을 가진 봉건시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봉건 시대로의 회귀는 여성에게는 가장 망각하고 싶은 역사의 기억이다. ‘전족’과 ‘변발’이 성행한 도구적 인간과 부녀자의 인권이 전혀 도외시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역발상으로 여성의 독립과 자존

을 펼칠 가장 적임의 시간으로 애용된다.

천월소설의 작가의 행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자아의식과 자신이 처한 사회와 역사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다.¹⁶⁾ 여성이 여성다워지는 문학적 방법은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아 성취는 두 가지 방법이다. 적어도 천월소설의 유형에서는 그렇다. 첫째는 자유를 누리는 것, 둘째는 자유를 속박하는 것, 단, 중요한 것은 여성 자기 스스로 속박하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일방적인 획득이 아니라 여성 주변의 반(反) 여성적인 요소들과의 긴장과 대립, 모순 관계의 지양(止揚)에서 비롯한다.

3. 권력-남성 지배의 문학적 무기

천월소설에서 ‘천월’을 하는 대상은 ‘시공(時空)’이다. ‘천월’의 주체가 남성의 경우와 여성의 경우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주로 고대 중국의 역사 무대로 그 존재가 영혼과 신체 혹은 개별적으로 역사적인 인물에 부착되어 연애나 권력투쟁 등을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참여하고 목격하

16) 대표적인 한 작가를 보자. 중국 현대 오대 작가 중의 1인으로 꼽히는 하과과(夏果果)는 ‘튀는 세대’의 대표 주자이다. ‘신생대(新生代) 미녀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퇴폐파’로 명명되어지며 자신이 ‘순수한 유랑 글쟁이’로 불리기를 바란다. 28세의 낙후 지역 협서성(陝西省) 출신으로 성도, 서안, 무한, 북경 등지를 유랑한다. 가수, 무용수, 엑스트라, 식당 매니저, 편집기획 등 유랑의 숙명을 이행하기 위해 분투한다. 불변의 신분이 있다면 ‘글쟁이’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엄마에게 큰 짐을 사드리려고 글쓰기를 시작했다. 첫 장편소설 『쇄(碎)』 발표 후 일약 국내 최일선 여성 작가가 된다. 그러나 갖은 비난과 모욕도 동시에 얻는다. 유랑과 반항, 탐색의 의미로 ‘하과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름에는 과일이 성숙하여 꽃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였다. 가장 짙은 방에서 밤을 세워 글을 쓴다. 荊楚網-楚天金報, 「80後當紅作家 都市里爲愛漂泊的“美女作家”」, 2008年5月2日, 新華讀書.

http://news.xinhuanet.com/book/2008-05/02/content_8090111.htm.

게 된다. 현대 여성은 주로 고대의 미모를 갖춘 여성의 영혼에 부착하게 된다. 그는 경국(傾國)의 미모를 지녔으며 태권도, 가무, 금예(琴藝), 시사(詩詞), 병법, 경상(經商) 및 의학에 모두 능통하다. 성격도 독립 자강(自強)의 특징을 갖추고 활달함, 직술, 자신, 강인한 내재미 등 현대 여성에 필요한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빼어난 용모와無比(無比)의 능력을 지닌 남성과 서로 ‘조건이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 주인공은 전쟁에 참가하거나 정치투쟁에 휩쓸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남성 못지않은 묘책을 내어 전세를 역전시키는 경우도 많다.¹⁷⁾

천월소설의 4대 천후(天后)로 불리는 동화(桐華)의 『보보경심』(步步驚心)은 ‘청천소설’(淸穿小說)이라고 불린다. 즉, 청조(淸朝)를 배경으로 하는 천월소설을 가리킨다. 도시의 화이트칼라 여자가 청조의 옹정(雍正) 황제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고사(故事)를 주 선율로 한다. 이 소설은 동명으로 연속극과 영화로 제작 중에 있으며 중국 최대의 검색 사이트 백도(百度)에 전문 파(吧, 바, 주제별 인터넷 공간)가 있을 정도로 성황인 소설이다. 청조의 황궁에서 벌어지는 권력에 대한 주인공 여성의 경력(經歷)은 역사와 나에 대한 관계 문제로 환원된다. 권력 투쟁은 관계의 다툼이다. 애정과 여성 자아를 획득하기 위한 도구요 책략이다. 중국적 정서가 그대로 계승되는 맥락을 예시한다. 『보보경심』의 결미(結尾) 부분의 주인공의 독백에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을 성취하려는 의도와 그 뒤의 허구와 허망한 미혹이 드러나 있다.

“원래 태자를 폐하는 투쟁이 지금부터 암흑 속에서 밝은 곳으로 공개되게 되었다. 팔아가(八阿哥)는 일찌감치 준비해 놓고 시기만 오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면 의도한 대로 되게 되어 있었다. 사아가(四阿

17) 許林, 『“蟻族”의白日夢-當下“穿越”小說敘事模式探析』, 作家雜誌, 2010年第6期, 8~9쪽.

哥)는 이미 사람을 보내 거사 일시를 좀 연기시켜 놓았는데 반드시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번 거사가 팔아가와 합작하여 태자를 몰아내는 일인데 내가(주인공 여성) 무슨 역할을 여기서 맡을 수 있단 말인가? 최루탄 같은 역할이 아닌가! 내가 없어도 이 일은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내가 몽고인과 관련된 일이 있고 강희(康熙)의 태도에 관련된 일이니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그들이 예정한 기한 이전에 발생할 수 있겠다. 내 손에 역사책이 없어서 내가 알고 있는 역사 발전의 (규율에 따라) 이 일이 진행 되는지 모른다. 마음속의 곤혹이 도대체 나 때문인가, 역사란 그렇기 마련인가? 아니면 역사가 그렇게 때문에 내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인가?”¹⁸⁾

‘여성화 글쓰기’가 된 글쓰기는 1990년대 이후 중국 여성 문단의 하나의 주류적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 문체와 표현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 본성에 근거한 ‘개인화 글쓰기’, ‘사적 차원의 글쓰기’, ‘여성 글쓰기’ 등의 개념이 분출하였으며 이는 여성 소설가의 개인 기질과 독특한 창작 욕구가 반영된 ‘성별 의식’의 소산이다. ‘성별 의식’에서 유래한 ‘성별 문체’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류 문학 표현 체계에 대한 반역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여성 본질의 세속화, 일상화, 개인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 조류에서의 여성의 존재에 대한 성찰은 여성에 내재적인 인성과 여성 자유적 존재의 회복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필연적으로 여성 자신에 대한 통찰을 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조류에 걸 맞는 여성의 문화적 인문적 함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여성의 본질적인 특징과 이것의 문화적 확산 작업은 시대적 문화 정신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역할,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여성의 표현 양식의 주체로서의 특성과 자유를 자주적으로 발휘하게 했다.

18) 桐華, 『步步驚心』(北京: 海洋出版社, 2006.4). 第123節: 第十二章(4).

‘거시적 서사(敍事)’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생명, 사회의 정감을 체험하는 ‘자서전(自敍傳) 문체형식’, ‘자서(自敍)성 여성 표현 문체(화어, 話語)’ 등 완전히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회상, 중복, 몽경(夢境) 등의 수법을 사용하여 현대에 대한 ‘구조의 재편’을 시도한다. 이는 ‘남성 중심 문화 전통의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와 ‘남성 글쓰기의 패권의 궤멸’을 시도하는 여성의 ‘신체 글쓰기’와 ‘욕망 대상화’의 작업이다. 현대와 현대 도시생활에 대한 여성의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여성화 재구조화를 소설을 통해 모색한다.¹⁹⁾ 여성이 사회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여성의 성적 역할, 문화 가치, 정감 전달, 욕망 취향, 여성의 내재성 탐색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성과 사회, 그리고 사회 구조에 대한 여성의 혁명 의도를 소설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최초 ‘정신 장편소설’이라는 유진운(劉震雲)의 『고향면(故鄉面)과 꽃』은 문학과 문체적 실험을 통해 현실과 환각 혹은 더 넓게 역사와 미래에 대한 여러 장면과 시각, 은유 등의 기법을 통해 고향에 대한 일체감을 시도한다. 그것은 역사, 문화, 민족, 심리와 인간 생존의 경우에 대한 추구하고 비판적 성찰을 우화 양식을 통하여 진술한다.²⁰⁾

“봉(불호, 不好)구(舅)는 이 사상의 사우나와 사상의 목욕을 일방적인 것으로 하고 상호적인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는 내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나는 그가 마치 한 차례 사상 목욕을 한 것 같다고 말해 주었다. 본래 두 사람이 공동으로 목욕하는 것이 현재에는 좋은 사우나실이 목욕조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인형을 안고 거기서 목욕하고 있었다. 좋은 공중 화장실이 그에 의해 개인 화장실로 변해 버렸다. 좋은 공용 비행기가 그에 의해 개인 자가용 비행기로 점유되어 버렸다.--역사는 이렇게 당신으로 하여금 기둥을 훑치고 가래를 바꾸어버리도록 할 것인가? 당신

19) 張學昕, 『90年代小說文體的新變』, 作家雜誌, 2001年11月, 78~79쪽.

20) 張學昕, 앞의 글, 80쪽.

이 내가 아득한 안개 같은 역사 속에서 더욱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은 결코 충분한 사실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없는 이론과 사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내가 감쪽같이 흔적을 지운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얼굴을 들고 눈에 억울한 눈물을 흘린다.”²¹⁾

8년의 집필 시간과 200만 자로 탄생한 장편소설 『고향면과 꽃』은 중국 20세기 향촌 문화에 대한 해부를 한다. 이는 민족 영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참신한 소설 관념을 건립하기 위해 전통과 현대적 기법을 다양하게 구사한다. 서사, 의론(議論), 서정, 그리고 노장(老莊)사상을 고향의 귀속 본능에 삼입한다. 서신, 전보, 부록, 가요, 이곡(里曲, 민요) 등의 서술 형식 등으로 새로운 예술 상상력과 사회 사실성 사이의 소통을 이루려 시도한다. 서사의 기법은 결국 사회와 여성 자신의 문제와 관계로 환원되는 것을 문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4. 성애-현대 여성식 애정의 표출

언정(言情)소설은 여성작가와 남성작가의 구분이 명확한 장르이다. 그만큼 같은 언정소설이라도 목표와 메시지로 하는 독자군이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황이(黃易)는 남성 언정소설의 개척자라면 여성 언정소설의 시작은 1993년 대만의 여성작가 석견(席絹)의 『시광(時光) 교착(交錯)의 애련(愛戀)』을 들 수 있다. 석견은 경요(璟瑤) 식의 애정 동화의 고전적 형식을 띠고 있다. 즉, 일정한 플롯을 보이는데 남녀가 백년 해로식의 사랑을 나눈다. 그러나 남성이 신념과 이상을 잃고 생활목표가 공리와 물욕에 충만되어 있을 때 사랑이 깨진다. 여성은 여기서 선택을

21) 劉震雲, 「卷一-01 麗晶時代廣場」, 『故鄉面和花朵』(北京: 華藝出版社, 1998. 9).

하게 되는데 ‘순정모델’과 ‘(사랑의) 쟁탈모델’로 나누어지며 천월소설은 이 후자의 유형이 다수를 점한다.²²⁾

『보보경심』의 애정 관계는 천월소설의 전형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약희(若曦)는 선왕(先王)의 유조(遺詔)에 따라 십사(十四)에게 시집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쇠진해져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윤진(胤纘)에 대한 사념(思念)을 안고 죽게 된다. 윤진은 후회 막급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비극으로 결말을 보게 되나 속집(續集)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있게 되는 희극으로 결말이 난다. 본 소설에 대한 독자의 의견 중 채택된 가장 근사한 답을 보자.

“여자는 현대로 되돌아 왔다...또 고대로 되돌아간다...그러나 현대의 신체인 것을...또 4와 같이 있게 됐다...홍력(弘歷)도 그녀를 좋아한다...후에 4는 그녀와 같이 있게 되기 위하여 죽음을 가장하여 궁전을 나온다...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다...아..기실은 속집(續集)은 결코 잘 된 작품이 아니다. 보보(步步)가 유감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을...속집에 이러한 유감을 보충해 주었다.”²³⁾

‘애정은 짝사랑에 상처를 입은 여성이 내면의 상처를 잊으려고 하나 결국 잊지 못하고 그 대상인 남자는 원래의 선량한 모습이 휘멸된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또 유랑한다.’ 이것이 하과과가 팔에 난 장밋빛 혈흔에 연상되는 애정의 추억에 몸서리친다. 그녀의 애정 사전에는 기본적인 어휘가 나열되어 있다. 은인(隱忍), 풍광(癡狂, 미치도록 열중함), 하루살이 불에 뛰어들다, 초연히 물러서다 등이다. 그녀의 소설 『쇄』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다. 중얼거린다. ‘나는 감람이야, 너는 누구니? 이러한 자아

22) 許林, 앞의 글, 8~9쪽.

23) 白度知道, 『《步步驚心》的結局是什麼?』, <http://zhidao.baidu.com/question/63898690.html>.

인지와 자아 미망(迷妄)의 심정은 우울증이 있는 그녀에게 고통의 단편을 아직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²⁴⁾

천월소설이 모두 현실과 유리되고 현실을 초월하려는 시도만을 과시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여성 심리에 기초한 여성에게 필요한 수양과 정신적인 양식을 찾는 시도가 현대 여성의 허무의식을 보충해 주는 의미에서 문학 행위로 표출된다. 여성 심리와 여성이 인터넷 세대에 처한 촉각의 세밀한 곳을 친정(親情), 우정과 애정 등의 여성 중심의 가치를 해석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예시하고 있다. 종내에는 인성(人性)에 대한 신뢰와 의탁의 여운을 남기는 의미를 띤다. 여인이 생명 군체 중에서 가장 매력있는 화제를 낳는다. 그들만이 세밀하고 민감하며 함축미와 몽롱한 성정(性情)을 지녔기 때문이다. 문금(文今)은 『자색을 좋아하는 여인』과 『자색몽환』의 두 장편소설로 고전적인 여성미와 심리를 묘사한다. 애정 문제에 있어서 방황하거나 유리(遊離)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정감의 세계를 보인다. 인터넷 세상에 필요한 인문 사상의 중후함을 기탁할 데가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소설 속의 여인들인 초아(肖嫵)와 예방(倪放), 람해(藍海)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초아와 이건(李健)도 인터넷을 통해 서로 안면이 생긴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다른 성격의 정감 방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도 않고 찬양도 않는다. 그리고 공간을 남긴다. 독자로 하여금 소설 플롯의 발전에 대한 맥락을 따라 답을 찾게 여지를 남긴다.²⁵⁾ 소설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한다.

24) 荊楚網-楚天金報, 앞의 글.

25) 楊欣閩, 『夢幻的女人, 紫色的人生-文今“紫色女人”系列小說中女性心理品讀』, 大慶社會科學, 總第158期第1期, 2010年2月, 157~158쪽.

“남편 어운성은 공장일 때문에 귀가하지 않았다. 초이는 식사 후 양치질을 마쳤다. 그녀는 무료하여 컴퓨터를 켰다. 40세 채팅방에 들어갔다. 초이는 자색의 모직 치마를 입고 있어서 자신에게 듣기 좋은 ‘자색치마’라는 이름을 생각해 지었다. 다른 사람이 채팅 초청하기를 기다렸다. 조금 후 자칭 ‘나는 깡패다.’라는 사람이 들어와 초아와 얘기를 나눈다. 나는 깡패다(약칭 깡패): ‘안녕, 동생.’ 초이는 그를 모른다. 또 이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과 채팅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의를 차려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깡패: ‘야식 먹으면 알게 되지.’ 자색치마: ‘미안해요, 시간이 없어요.’ 깡패: ‘야, 얌전한 척 하네, 내가 좀 먼저 주면 기분 좋아질 거야, 아가씨.’ 자색치마: ‘진짜 깡패군요.’ 깡패: 화 내지마. 화내면 나쁜 아이지. 내가 너의 얼굴에 뽀뽀하고 그 다음 너의 입술에 뽀뽀해 줄게.’ 초이는 처음으로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다. 화가 치밀어 멍청히 컴퓨터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린다.”²⁶⁾

연정(戀情)은 ‘제3류’와 ‘제4류’ 등의 정감의 범주를 나눈다. 혼인(婚姻)련(戀)에 대해서이다. 애정은 보통의 교역과는 다르다. 따뜻한 손은 인터넷을 초월하여 심령의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생활이 곤란하고 도전을 받더라도 심령에 위안을 바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사치인지 모른다. 인터넷이 허위와 환상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이다. 여성은 결혼을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본위’를 지킨다. 여성 자신의 심리와 객관적 환경의 통일을 기도한다. 적극적인 태도로 여성이 처한 정감 문제를 대면한다. 회피하거나 부연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성 자아의식의 부활과 강화이다.²⁷⁾

애정 테마는 천월소설에서 극히 자의(恣意)적인 성격을 띤다. 여성이 주체가 되어 객체와 대상에게 향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26) 紫烟雨朦의 博客, 『原創長篇小說《喜歡紫色的女人》連載之一』, 2007年8月24日, <http://daqingziseyanlei.blog.163.com/blog/static/400599282007724112422483/>.

27) 楊欣閩, 앞의 글, 157~158쪽.

제는 애정의 객관화와 ‘당사자’의 이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사적인 공간의 개념이 공적인 개념으로 전이된다. 다양한 여성의 심리가 표출된다.

5. 자아-여성 존재의 새로운 해석

전통 남성의 남권(男權) 사회에서 여성 독립의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천월소설을 통한 여성작가의 창작의 임무이다. 위에서 예를 든 4대 천월기서에서 이러한 사상은 주류를 이루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보경심』의 여주인공 말타 루시는 현대 여성의 강인한 독립심과는 달리 구 사회의 노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고대나 이세(異世)로 타임머신 같이 돌아간 현대 젊은 여성은 권세있는 남성의 노비, 첩실, 정인(情人) 등으로 변모하여 고대 여인들과 총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²⁸⁾ 그리고 비장하게 중국 여성의 최후의 위급한 시각에 처했다는 선언을 한다. ‘우리의 처지가 최후의 위급한 시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아무도 최후의 경종을 울리지 않았다. 깨어나라. 남성의 광기와 오만의 근본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자중(自重)하지 않고 자존(自尊)하지 않은 대가를 치루고 있다는 것을!’²⁹⁾

그러나 소설의 허구 담론과 작가의 의도와 해석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소재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행태와 관습을 묘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소설의 내용을 관통하는 이데올로기와 영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가정(假定)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 회고와 과거에 대한 그리워함, 혹은 과거의 부조리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여성의 자각을 불러일으킨

28) 司艷輝 田娜, 앞의 글, 16쪽.

29) 馬咏梅, 『中國女性到了最危急的時刻』, 2010年3月5日. <http://blog.sina.com.cn/mayongmei>.

다는 점, 패러독스의 효과 의 복사(輻射) 등을 들 수 있다.

천월소설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성 자아에 대한 ‘성별 의식’에서 비롯된 문학의 소산이다. 남성 작가의 필치 하에서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여성 작가에 의해 관념화된 남성과 여성의 유형이 존재한다. 남성에 의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남성 시야(視野) 중의 남성 형상은 ‘양강(陽剛)의 상징으로 표출된다. 남성 우월주의의 영향으로 남성 영웅과 강자(强者)의 권세와 재력 및 무수한 여자를 거느린 전형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반면 남성 시야 중의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성별 심리의 사회적 역할과 성별 역할이 현저히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전통 여성상인 ‘음유’(陰柔)가 남성에 의해 표방되는 패턴을 보여 여성 범람과 자칫 색정(色情) 소설의 경향으로 빠진다.³⁰⁾

반면 여성 필치로 묘사된 남성은 어떤 모습인가? ‘여성빈도’로서 표상되며 이는 여성 존중, 여성이 주가 되는 소설을 말한다. 남성소설이 수많은 여성 배역을 등장시키는 반면 여성소설은 수많은 남성 역할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모든 남성이 주인공인 여성 자신 하나를 사랑한다. 이것은 구(舊)사상인 일부다처제나 부위부강(夫爲婦綱)의 전통 윤리에 대한 반격의 발로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프로이드식의 여성 자신의 자련(自戀)의 상징이다.³¹⁾

천월소설은 이 부분에 몇 가지 남성의 유형을 여성 문학의 목적론 입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귀족형, 공자(公子)건달형, 재부(財富)형과 풍류형 등이다.³²⁾ 이들의 성격은 여성 중심의 문학 상상의 공간에서 전형적인 행위와 사고의 모델을 표출한다. 여성은 주로 신데렐라 형이나 애정에 승승장구하는 공주형으로 등장한다. 혹은 남성을 몇 명씩 거느린

30) 王浩, 앞의 글, 28~29쪽.

31) 王浩, 위의 글, 29쪽.

32) 王浩, 위의 글, 29쪽.

여장부형으로 남성이 여성 다수를 점하고 여성을 소유물로 여겼던 전통 여성상에 반역을 시도한다.

이제 여성소설 속에 자아의 모색과 회복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여성소설 속의 여성상의 모습을 보자. 첫째로 영합형으로 여성이 자신을 창조할 때 남성에 영합하는 신체, 용모, 기질, 화장 등이 모두 남성 위주로 남성의 기호에 철저히 적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후궁형으로 현대 여성이 사망으로 고대 여자의 신체에 영혼이 부착되어 황후부터 여자 종까지 다양한 신분으로 전환된다. 신분은 고대인이나 심리는 완전히 현대인의 형상이다. 셋째, 남자형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남성으로 전환한 후 여존 남비의 각도에서 새로운 남녀 관계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색녀’(色女)의 개념으로 남성이 성(性)의 주체가 된 것과 달리 여성이 성의 주체가 되는 역할의 전도(顛倒)를 나타낸다. 넷째, 추녀형이다. 여성으로서 추녀가 겪는 인생의 이력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이름다움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여성의 반역은 추녀를 여성의 용모 외의 곳으로 주의력을 전환시키는 의도를 띤다. 추녀는 결코 추녀가 아니다. 남성의 심미 관념에 대한 전복을 꾀한다. 다섯째, 강인(強人)형으로 피학적인 전통 여성의 상황에서 벗어나 가학적이고 공격적인 여성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의 저변에는 상괘함보다는 애상(哀傷)의 기운이 묻어난다. 여섯째, 원녀(怨女)형이다. 원망을 가지나 결코 분노하지 않는 것이 전통 숙녀의 표준 행태였다. 전통 사녀(士女)나 여류 문학가의 일반적인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전형적 형식이었다. 그러나 심리의 깊숙이에는 비통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여성 본질적 심리가 문학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³³⁾

33) 王浩, 앞의 글, 29~32쪽.

결혼과 이혼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인생의 가장 중대사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결혼의 불행으로 인한 이혼에의 직면과 실행은 여성에게는 자아와 관련된 심각한 천월소설의 주제가 된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 된 여성의 자각과 이혼에 대한 새로운 문학적 성찰은 『중국식 이혼』부터 본격화 되어 2006년 왕해영(王海鸰)의 『신결혼시대』가 9월 상순 발표된 이후부터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2007년 동명의 tv 연속극이 상해에서 제작되어 최고의 시청율을 기록한다. 이와 동시에 혹은 그 전부터 인터넷에서는 ‘신(新) 자(字)로 시작되는 ‘혼인이 반드시 조건이 맞아야 하나?’ 등의 토론이 비등했다. 『중국식 이혼』같은 센세이셔널 몸부림조의 이벤트 성격을 벗어나 『신결혼시대』에서는 예리하고 냉정한 사고를 요구한다. 이는 혼인과 가정 본연에 대한 심사숙고와 남녀관계, 그리고 여성심리에 대한 자아반성의 성찰을 문학적 성숙을 통해 요구하는 것이다.³⁴⁾

현대의 결혼의 의미는 천월소설에서 ‘사람과 사람의 결혼은 상대방의 모든 사회관계와 결혼하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소설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개성’의 강조는 여성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생활과 문학적 사고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쌍방적인 것으로 표출된다. 『중국식 이혼』에서 여성이 선택하는 배우자가 자신보다 더 성공하고 더 능력있는 존재로 정형화된다. 이러한 패턴이 『신결혼시대』에서 전통 성별의 속박을 돌파하는 여성의 의식을 추적한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여성의 행동, 성공한 남자를 과감히 물리치고 떠날 수 있는 행위 등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남성 신화의 비판에 그 메시지가 두어진다. ‘남성의 권력은 여인의 흥분제이다.’는 명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여성 스스로의 심미와 존재 전반에 대한 가치의

34) 劉汶蓉, 「漫說《新結婚時代》中的異質婚姻和女性獨立」, 社會觀察 2007年 4月, 51쪽.

표준이 변해야 함과 동시에 남성에 대한 심미관과 존재에 대한 가치 표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통념에 반(反)하는 반역의 메시지이다.³⁵⁾ 자아의 회복과 관련된 결혼 및 이혼의 담론은 여성의 남성에게서 받는 동정(同情)과 나약한 여성 존재의 노정(露呈)인가 아니면 불행을 슬퍼하되 불행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 노여워해야 한다는 격렬한 구호인가의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6. 결론

현대 중국의 인터넷 소설의 한 유행하는 양식인 천월소설을 중심으로 표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 분석해 보았다. 소비성향이 강한 현 시점의 천월소설은 만인이 작가가 되어 허구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수한 문학 산물을 쏟아 낸다.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중국만의 현상이다. 엘리트주의의 배경과 일본 애니메이션에의 영향 등 서양 사조에 의 동경, 무수한 직업 작가의 존재 등이 이 기이한 현상을 빚어 낸 사회적 요소이다.

천월소설 구성의 사상적 근원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소설 작법과 허위적이고 작위적인 표현 기법으로 인하여 역사를 역사로 인식하지 않고 여성의 자아 회복과 권력 획득, 그리고 애정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강구한다. 무엇이든 허구의 미명 하에 취득 안 될 일이 존재하지 않는 욕구 만족의 글쓰기 동기를 노정한다. 픽션은 리얼리티를 모방한다는 소설의 기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다. 그만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세 가지-권력, 애정과 자이로 천월소설 주제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다.

35) 劉汶蓉, 앞의 글, 52~53쪽.

사상적 근원 문제에서 권력은 사회와 여성의 관계와 지위 고정 문제로 환원된다.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대를 시간과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현대 여성의 미망과 불안, 불확실성과 심리 결핍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애정은 여성의 전유물이다. 그러나 역시 역설적으로 남성에게 부속되는 경향이 가장 농후한 여성에 관한 주제이다. 보브와르의 ‘제2의 성’ 등에 보이는 서양 사조는 기실 중국의 풍토에 아직 접합이 되지 못한다. 근본적인 여성의 존재 의식에 대한 관념이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보브와르는 남성에게 독립적이다. 천월소설의 여성은 남성에게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아의식은 여성의 존재를 진지하게 문학적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 범주의 천월소설은 자신의 사회와의 관계를 화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여성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확정하고 싶은 욕망이 문학 행위를 통해 분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력은 어떻게 천월소설에서 구현되었는가. 애정 혹은 자아의식과 결합하여 권력의 획득에 여성이 참여하게 된다. 문체와 표현 양식과 기법, 새로운 형식과 내용 등으로 사회의 구조를 허구화시킨다. 재구조화를 시도한다. 문학적정신과 문화정신이 여성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구체적인 천월소설 속에서의 논의는 현실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의 욕망과 전통적인 온난한 여성다움의 애정으로 남성을 감싸는 행위, 결혼과 이혼의 애정에 대한 실제 문제에 대한 성찰 등을 담고 있다.

자아 및 자아의식은 천월소설의 가장 중요하고 심대한 이론을 형성하고 있다. 여성의 ‘성별의식’, 자신 존재의 성취를 위해 할 수 있는 가능한 상상과 실천을 감행하는 것, 전통적인 관념인 결혼과 이혼 등이 여성 운명에 대한 굴레가 아닌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어야 하는 것 등의 관념이 분출한다.

여성소설이 중국 현대에서 인터넷을 무기로 독특한 존재 양식을 구사

하고 이에 따른 기존 선입견의 파괴와 문학의 소비화를 자임하는 상황에 이르러 현대 중국 여성의 지위와 사상의 상황을 반영하는 척도가 되었다. 여성소설의 중국에서의 전통은 남성에 대한 상대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못했다. 남성에 대한 ‘원한’, ‘복수’에서 ‘조롱’으로 세 단계를 거쳐 오는 역사 맥락을 예시하기도 했다. 역사적 문학의 유물로 비유하여 『시경(詩經)·백주(柏舟)』의 ‘아이구! 내 마음의 진정을 몰라주네!’³⁶⁾의 차원에서 조수리(趙樹理)의 『소이흑결혼』(小二黑結婚)의 “임자의 물건을 수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의 차원으로 다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어느 여류 작가가 토로한 “세상에 남자가 없네.”의 차원³⁷⁾으로 여성 심리의 역사적 발전과 본질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여성문학은 이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국가 이데올로기의 간섭, 사회여론의 개입과 전통문학 영역으로부터의 비평 등이다. 서양의 여권주의의 영향으로 ‘여성(女性)빈도(頻道)’를 주창한다. ‘주(主)빈도’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이다. 문학 사이트 중에서 여성문학 전문 사이트가 탄생했다. ‘소상서원(蕭湘書院)’과 ‘홍수첨향(紅袖添香)’ 등이 그 실례이다.³⁸⁾

사회적인 반향(反響)은 컸다. 강한 소비 성향과 허구적인 역사 배경과 스토리 전개の本성을 가지게 된 천월소설은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제약에 부딪힌다. 에로티즘적 본능의 고사(故事)는 이데올로기 주체의 수수방관과 비정치적 관심의 주요 주제로 간주되어 온 시점을 넘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관리부문은 수년래의 관련 업계의 호응과 더불어 본격적인 ‘인터넷 저속화’ 현상에 대한 유력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 2009

36) 원문은 다음과 같다. “母也天只 不諒人只.”

37) 孫紹先, 『女性主義文學』(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7), 王浩, 앞의 글, 230쪽. 재인용.

38) 王浩, 앞의 글, 28쪽.

년 초 국가 7개 부처가 연합하여 장기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³⁹⁾ 천월소설에 기념비적인 해인 2008년은 인터넷소설이 더 이상 변방의 특수한 형식이 아닌 소설과 문학, 그리고 여성문학의 주류로 자리 잡는 해였다.

결론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귀납한다. 첫째, 천월소설은 문학적 지평의 외양과 인터넷의 즉흥성과 전파력, 그리고 소비성향 등을 겸비한 여성의 문학적 행위에 가장 적합한 신 시기의 양식이 되었다. 둘째, 천월소설의 문학적 이념은 욕구와 여성주의 이념, 그리고 서구식의 여성 가치관 등 및 전통에 대한 인식과 비판 등을 담고 있는 복잡한 사상적 경향을 노정한다. 셋째, 천월소설의 본질은 비문학적인 문학적 방법을 지향한다. 즉, 문학이 아닌 작품 완성도를 지닌 것이 범람하는 가운데 막대한 양적 성장과 유행을 통해 중국 사회의 여성의 심리와 지위, 기본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작용한다.

39) 王浩, 앞의 글, 29쪽.

□ 참고문헌

- 陶東風, 「新時期文學三十年: 作家“倒下去”“寫手”站起來」, blog. sina. com. cnPt aodongfeng.
- 桐華, 『步步驚心』(北京: 海洋出版社, 2006).
- 馬咏梅, 「中國女性到了最危急的時刻」, 2010年3月5日.
http://blog.sina.com.cn/mayongmei.
- 白度知道, 「《步步驚心》的結局是什麼?」,
http://zhidao.baidu.com/question/63898690.html.
- 司艷輝 田娜, 「從網絡穿越小说中看現代女性的迷惘」, 文教資料, 2010年2月號
下旬刊. 14, 16쪽.
- 舒晉瑜, 「作家社100萬簽下四大“穿越奇書”」, 中華讀書報, 2007年7月25日.
- 孫紹先, 『女性主義文學』,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87.
- 楊欣閩, 「夢幻的女人, 紫色的人生-文今“紫色女人”系列小說中女性心理品讀」,
大慶社會科學, 總第158期第1期, 2010年2月. 157~158쪽.
- 王士紅, 「用福柯的權力理論解讀海勒的《第二十二條軍規》」, 重慶工業學院
學報(社會科學), 第21卷第12期, 2007年12月. 117~119쪽.
- 王浩, 「論當下網絡文學的性別傾向」, 廣西師範學院學報, 2009年10月第30卷
第4期. 28~32, 230쪽.
- 劉汶蓉, 「漫說《新結婚時代》中的異質婚姻和女性獨立」, 社會觀察 2007年 4
月. 51~53쪽.
- 劉震雲, 「卷一-01 麗晶時代廣場」, 『故鄉面和花朵』, 北京: 華藝出版社, 1998.
- 李孝英, 「父權制歷史, 神話與波伏娃的女性“他者”地位」, 高等函授學報, 2010
年2月.
- 紫烟雨朦的博客, 「原創長篇小說《喜歡紫色的女人》連載之一」, 2007年8月24日,
http://daqingziseyanlei.blog.163.com/blog/static/400599282007724112422483/.
- 張書麗, 「跨越時空的契合-張愛玲和波伏娃的女性意識比較」, 東北大學學報,
第12卷第3期, 2010年5月. 278~282쪽.
- 張學昕, 「90年代小說文體的新變」, 作家雜誌, 2001年11月. 78~80쪽.

鄭薇, 「盛開在網絡的文學之花-概述網絡女性寫作者的小說創作」, 黑龍江社會科學, 2007年第2期. 78쪽.

曹沅, 「從網絡穿越小說看其中的現代蘊味」, 文教資料, 2008年6月號上旬刊. 23~24쪽.

荊楚網-楚天金報, 「80後當紅作家 都市里爲愛漂泊的“美女作家”」, 2008年5月2日, 新華讀書.

http://news.xinhuanet.com/book/2008-05/02/content_8090111.htm.

許林, 「“蟻族”的白日夢-當下“穿越”小說敘事模式探析」, 作家雜誌, 2010年第6期. 8~9쪽.

Abstract

Power, Erotism and Self-Esteem

-The Discourse of chuanyue Novel in Contemporary China

Lee, Sang-ok

The paper would explain that chuanyue novel(transcendent of time and space), woman novel with the internet network, has the characteristics and contexts in the in contemporary Chinese historic stage. I would suggest that the core concept of chuanyue novel is the power, erotism and self-esteem.

The background of chuanyue novel would be that Michael Foucault, Simone de Beauvoir and the mainstream of western literature thought like post modernism.

The power concept in chuanyue novel represented that the accurate acquirement of the connection between Chinese woman and the society system. The erotism element in chuanyue novel illuminated pure love from the white collar woman psychological situation or domination to the man. The self-esteem concept symbolized that freedom or anti-freedom by the woman sought and expressed the many methods of thinking or life style.

In conclusion, I would suggest that first, the chuanyue novel was the most accurate formation to express Chinese woman, second, chuanyue novel sought and expressed through the influence of western modern literature thought, third, we understand that chuanyue novel would be the measure to explain Chinese city woman.

key words : internet novel chuanyue novel power erotism self-esteem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